

1ä ,fl

3\,i/C 2!2&2Y16-ç 4i-q-ø

2`2T O 2J . -h,ø2Æ

ÔU/É2T /óø 0-2\2H 3 4i4ôôpa Ö

4i-q-ø2T Öi/K ,N2.(ÖÑ%2ª 2 /K ,%5,N 3I/P 2`-2H /4%02H 2Y.B0ç/ 164 , ,N/fi 2` . ÖJ/C - /K/ 4.B/C 22n2355-ç 10ø 2;2&2H 4N4+ 0', 2T /X1, \$,Öi2T 1Ü /2[8 /; 2', 3.- 40/K4t 2\0 3â ÖJ1 / , ,161 . 1 /V2G 1â"2H ,24I/ 4i-q-ø 1âfl .</N 1 2c1, 2Y2< 4i-q .ç .552r 2Y2t/ / O 2T ,i,8/C 4N4ô -µÖ iö 8 <62Æ/T .1- 2 ÖÑ /f1 4ô 1â5"2H ,22T æ/ 2[84i,02ô4æ 2Æ,%5 0'.8.12Y 0 -1æ 3 4i /162Æ

만민뉴스

제809호 2017년 10월 8일(창립 특집호)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끝이 없는 재창조의 권능

35년간,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크고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펼쳐져
성도들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다.

MANMIN

영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10)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세계 만민을 향한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제단을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헌신해 오신 주의 종과 선교사님들, 모든 일꾼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이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무수히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어떤 일을 해내면 우쭐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교만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추후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권능의 기도로 강력한 허리케인이나 홍수, 가뭄, 전염병을 물리쳐 수십, 수백, 수천만 명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히기도 했지만 제 마음은 감히 높아질 수 없었지요. 먹기보다 금식을 더 많이 하고, 잠을 자기보다 철야 기도를 더 많이 하며 하나님의 깊고 비밀한 말씀들을 풀이받아 전했다고 했지만 교만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는 두 눈만 성할 뿐 온몸이 병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장의 역할은 고사하고 사람 노릇도 할 수 없어서 멀리 천대를 받는 비참한 사람이었지요.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단번에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지요. 또한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1978년 5월, 기도 중에 “만세 전에 택정한 내 종아, 내가 너를 들어쓰겠고 네가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며 바다를 건너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며 기사와 표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만방에 알리는 내 종이 되리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현실을 보면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

다. 저는 7년간 병고로 얻은 산더미 같은 부채를 짊어지고 단칸방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기억력이 없어서 신학공부를 할 자신도 없었으며, 심히 내성적이어서 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지요. 제게 있는 것은 그저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 받은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얻은 영적인 생명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뒤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세 전에 택하였고 모태 적부터 너를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 이 시간까지 친히 인도하였노라. … 내가 너를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한 이유를 이제 알리라. 내 능력으로 너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이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닌 저를 도구로 세우셔서 산과 바다와 강을 넘어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무수한 영혼이 헛된 우상과 흉악의 결박에서 놓임받고 불치병, 난치병들을 치료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지닌 주의 종과 일꾼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영혼을 구원



하고 있지요. 또한 성결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방송 전파를 타고 구원받는 수를 더하고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가 각종 재앙 속에 신음하는 세계 곳곳에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는 더 크게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주님의 것이기에 ‘내 것이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많은 것을 포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8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03, 50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오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사와 같이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며 사도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생명 다해 충성했으니 그 대가를 취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 후반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참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의 종, 일꾼들과 성도님들 또한 끊임없이 이런 믿음을 키워오셨기에 오직 선교하고 구제하며 세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오늘의 만민이 있기까지 마음에 오직 ‘주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불타올랐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들을 얻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마음이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수한 영혼을 천국은 물론, 하나님과 주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인도하기 위해 저의 모든 삶을 바쳐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2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 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드립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교회 창립 이후 오늘의 만민이 있기까지는 역경들도 있었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 다해 헌신해왔음에도 교회가 부흥하자 이를 시기 질투한 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도 있었지요.

이러한 때도 저를 눈물짓게 하는 것은 저를 향한 세상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약해 진리에서 떠나는 영혼들을 보는 것, 자기 악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이들을 지켜보는 일이 가장 큰 고통이었지요.

양 떼들이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축복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목자로서 대신 중보하는 동안 목숨이 끊어질 상황을 수차례 넘겼지만 이때에도 가장 큰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을 위해 더 이상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 이러한 막막함이 가장 큰 슬픔으로 다가왔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전 세계의 1만 1천여 지·협력 교회를 비롯 무수한 성도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권능까지 허락해 주셨지요.

이사야 60장 4절에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날이 갈수록 더 큰 무리의 영혼이 이 제단의 품으로 안기어 오고 있지요. 이는 목자와 함께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시는 많은 주의 종과 일꾼,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득히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여러분의 마음에도 진정 아버지만, 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민과 함께하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러 함이로라” 했습니다. 혹여 ‘물질을 탐한다. 주의 일보다 사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오해하여 복음을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루하루를 사는 이유는 제 개인의 삶을 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것’을 포기할 때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지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처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해외 성회나 산기도 같은 일정 외에는 단 한주도 단을 비워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가는 잠시 동안도 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손을 힘껏 잡아드렸습니다. 수천 명의 손을 잡음으로써 손이 찢기고 패여도 개의치 않았지요.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이에 많은 성도가 불치병, 난치병, 각종 연약함을 치료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교회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본 뒤로 오직 위엿 것을 찾아왔습니다. 병들어 괴롭고 외로웠던 저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요. 그러자 불쌍한 많은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유한 장로가 되어 예전의 나처럼 병들거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부모보다, 자녀보다, 너의 아내보다 나를 사랑하되 첫째로 사랑했느니라. 나만을 사랑했느니라. 그러므로 이후에 나는 누르고 흔들여 백배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피 흘려주신 무수한 영혼을 향



가뭄 가뭄 중 단비를 내리다

2017년 4월, 인도는 5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아 가뭄 피해가 확산되고 있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어 많은 농민이 파산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는 일도 일어났다.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성도들은 식수를 비롯, 생활에 필요한 물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담임 한정희 목사의 기도 요청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지난 4월 16일 주일 저녁예배 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불과 1시간 30분 후, 인도의 타밀나두 주 여러 지역에 비가 내린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당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비구름이 다른 곳에서 몰려온 것이 아니라 인도 상공에서 생겨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오른쪽 사진 1, 2, 3). 이 목사가 기도한 결과, 타밀나두 주에서 가뭄이 가장 심한 지역에 비가 내렸고,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매주 3일 이상 타밀나두 주의 여러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왔으며 5월에도 여러 번 내렸다.

인도의 가뭄이 해결된 역사는 2002년에도 있었다. 인도 연합대성회를 진행할 당시 성회 개최지인 타밀나두 주는 3년간 가뭄이 지속되었으며, 10개월 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 하지만 강사 이재록 목사와 선교팀이 인도에 도착한 바로 그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이 목사를 '레인 맨'(비를 몰고 오는 사람)이라 부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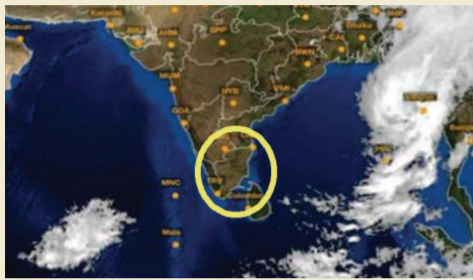


사진 1) 기도받을 당시 비구름이 없는 인공위성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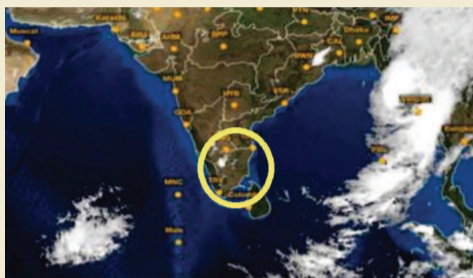


사진 2) 기도받은 후 인도 상공에 비구름이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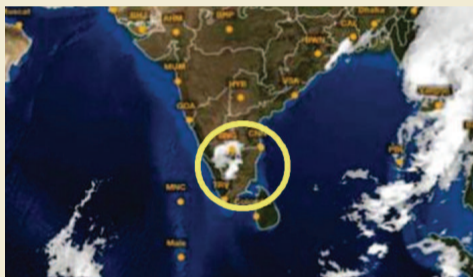


사진 3) 시간이 지나면서 비구름이 커지고 있다.



▲ 인도 타밀나두 주 원인디아 타밀뉴스 TV 방송에서 비 소식을 전하고 있다. ▲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비가 내려 가뭄이 해결된 케냐.



2009년 9월,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진행할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현지 언론의 요청으로 강사 이재록 목사가 이를 위해 기도하니 건기임에도 성회가 끝난 다음날 바로 비가 내렸으며, 이후 한 차례 더 기도하자 이스라엘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다.

2017년 1월, 아프리카 케냐 북부 지역에 가뭄이 심해 사람들이 굶고 가축과 동물들도 물과 음식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상황이었다. 이에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가 1월 27일, 이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해 28일, 29일, 31일에 비가 내려 가뭄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홍수 폭우를 멈춰 홍수를 막다



이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페루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페루만민교회도 홍수로 인해 물이 나오지 않아 인근 공원에서 물을 받아 사용해야 했다. 이에 담임 김항열 전도사가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해 3월 19일 주일에 기도해 준 결과, 다음

2017년 3월, 페루에 약 3개월간의 홍수로 인해 70명 이상 목숨을 잃고 수만 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

날 바로 산간지역에 비가 멈추었다. 비를 멈추는 역사는 개척 초기부터 나타났다. 1983년 8월에 열린 하계수련회 첫째 날 새벽, 교회에서 밤을 지낸 일부 학생과 청년들이 천둥 번개가 동반된 폭우로 인해 출발하지 못하자 당시 이재록 전도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합심기도를 했다. 그 뒤 믿음으로 2층 교회건물에서 나와 땅을 밟는 순간 비가 멎고 천둥 번개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처럼 천기를 움직이는 역사는 수없이 많지만 2013년 8월 하계수련회 첫째 날에도 있었다. 집회가 시작되고 10여 분이 흘렀을 때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이 목사가 기도를 하니 수련회장 하늘을 덮고 있던 10여 Km 두께의 먹장구름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이내 비가 멈추고 그 위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반짝이는 별들도 볼 수 있었다.

천기(天氣) 크고 놀라운

성경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하니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왕하 20:11).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이 5:17~18).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주의 종을 맞아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베푸신 무수한 역사 가운데



태풍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 권능의

2017년 9월 8일 저녁 7시 45분,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역대 최강인 '어마'로 인한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살아 계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미국에 큰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5등급 허리케인이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재앙에서 피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또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가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모든 게 아버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광받으소서.”

허리케인 '어마'는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미국에 상륙하기 전 카리브해를 지나면서 그 주변의 여러 섬들을 초토화시켰다. 플로리다 주에 상륙한 후 동부해안을 타고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해일로 인한 큰 피해도 예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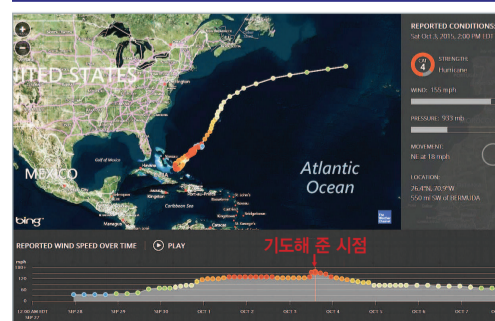
동부지역에는 큰 도시들이 많아 플로리다 주 2

천만 명에게는 대... 650만 명에게는 강... 한 주전 미국 텍... 타한 허리케인 '하... 지만, 650명이 넘... 액을 기록하였기... 심은 클 수밖에 없... 들과 성도들, 미하... 레프 목사, 비탈리... 아게 최대 교회 담...



▲ 허리케인 '어마'의 진로

《《 2015년 10월 허리케인 호아킨 소멸》》



▲ 미국 뉴욕 비탈리 피쉬버그 목사의 요청으로 이재록 목사가 기도하자 이후 허리케인 호아킨이 소멸되었다.

《《 2017년 8월 태풍 노루》》



▲ 태풍 노루가 이재록 목사의 기도와 100 km 더 멀어지는 역사

바람을 움직이는 은 성령의 권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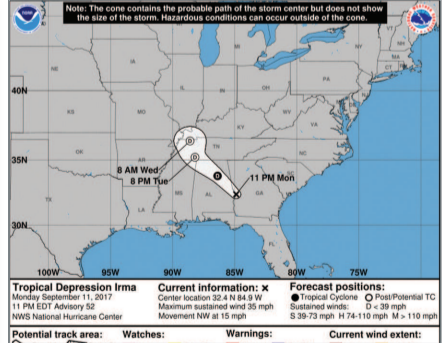
렸으며(삼상 12:18),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
나 비가 오지 않다가 그가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왕상 17~18장 ; 약
등을 통해 크고 놀라운 기사(奇事)를 펼쳐 보이고 계신다. 교회 창립 35주년
일부를 소개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기도로 이동, 소멸되다

피명령이 내려졌고 3분의 1인
제 대피령이 내려졌다.
사스 주와 루이지애나 주를 강
비'가 '어마'보다 낮은 등급이었
는 사망자에 180조가 넘는 피해
미국 정부와 국민들의 공포
었다. 이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
일 모글리스 박사와 마크 바잘
피쉬버그 목사와 뉴욕 내 러시
임인 겐나지 자발리 목사, 러시

아계 여러 목회자들이 기도 요청을 해 온 것이다.
그 결과, 허리케인 '어마'는 플로리다 주에 4등
급으로 상륙해 동부해안을 타고 북상할 것이라
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내륙으로 진로를 변경했
고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약화되다가 우리
나라 시간 11일 오후 9시에 열대성 폭풍으로 소
멸되었다. 더욱이 인구가 밀집한 도시들이 모여
있는 동쪽이 아닌 국립공원과 습지들로 인구 밀
도가 적은 서쪽으로 진로를 이동하여 큰 피해에
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진로 변경



이 외에도 1982년 개척이래 태풍의 진로가 바뀌고 소멸된 사
례는 많다. 1987년 7월 태풍 '엘릭스', 1989년 7월 '주디', 1994년
8월 '브렌던'과 '더그', 2001년 9월 필리핀 성회 전 다가왔던 태
풍 '나리'와 '레기마', 2004년 9월 일본 전역을 휩쓴 태풍 '송다',
2007년 9월 태풍 '나리', 2009년 12월 인도 사이클론 '위드', 2010
년 8월 태풍 '넬무', 2011년 8월 허리케인 아이린, 2014년 8월 태
풍 '나크리', 2015년 10월 허리케인 호아킨 등이다.

특히 2008년 8월에 발생한 허리케인 '구스타브'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이 목사가 기도해 준 뒤 세력을 잃고 소멸되는 역사
가 나타났다. 2016년 10월 초에는 미국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이
목사가 기도해 허리케인 '매튜'가 하루 만에 세력이 약화되었다.
2017년 8월 수련회를 앞두고 태풍 '노루'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이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다. 이에 이 목사가
기도하니 진로가 동쪽으로 바뀌었고, 한 차례 더 기도하자 예상경
로에서 100 km나 더 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바람 파도를 잠잠케 하며 바람을 움직이다

풍향계의 바늘은 제로(0)를 가리켰다.
2017년 5월 15일 교회 행사가 있던 날, 당시
는 연일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
해 공기오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런
데 그 전날 주일 대예배 시 이 목사는 "내일은
미세먼지가 없는 좋은 날씨가 될 것"이라고 말
했고, 과연 다음 날 미세먼지가 전혀 없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 되었다. 또한 행사 전날 초
속 5 m 안팎의 강한 북서풍이 불어와 5 km에
불과했던 가시거리가 다음날 20 km까지 됐다.
1998년 7월, 주의 종 교육 마지막 날 체육대
회 시 전국적으로 무덥고 뜨거웠지만 이 목사
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움직여
주시니 세 방향에서 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가
려주었다. 2006년 하계수련회 때에는 시베리
아에 있는 바람을 보내주셔서 벌레도 없이 시
원한 날씨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2013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만민 하계
수련회 시에는 하나님께서 8월 첫 주의 폭염
속에서도 수련회장은 구름으로 두텁게 덮어주
시고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해 주셔서 시종 쾌적
한 날씨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2004년 3월, 만민성지순례 일정 중에도 바람
이 잠잠해지는 기사가 있었다. 스위스 융프라우 산 정상(해발 3,571미터)을 올라야 하는데
강한 바람과 눈보라가 친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에 이 목사가 아침에 출발하기 전 기도하므
로 바람이 불지 않았고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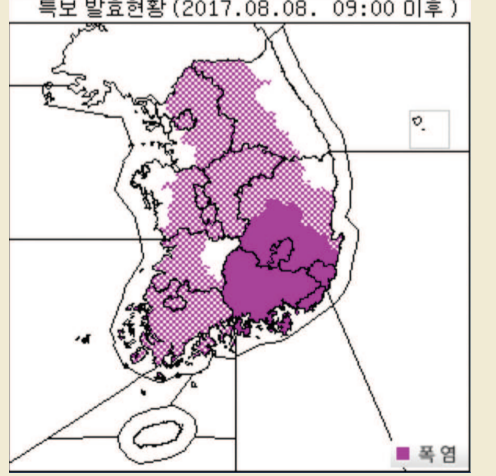
기온 기온 조절로 최적, 최상의 환경을 만들다



2017년 5월 15일 교회 행사가 있던 날과 7
월에 있던 기관장교육에 이어 8월 만민 하계
수련회 때에도 기온 조절의 역사가 나타났다.
특히 수련회 전날 이재록 목사가 '25~26도
로 기온 조절이 될 것'을 말했는데 그대로 됐
을 뿐 아니라(왼쪽 사진)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평소 이맘때 32도인 인도의 기온이
26도로, 30~33도인 민주공고의 기온이 25도로
되었으며, 몽골과 태국도 25~26도인 최적의
날씨로 수련회를 충만하게 보낼 수 있었다.

2016년 5월 중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84년 만의 무더위가 계속되
었다. 그런데 교회 행사가 있던 5월 26일에는
낮 기온이 24.4도로 쾌적했다. 그해 8월 8일,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지만 교육이 시작된 오후 7시를 기준으
로 무주 덕유산리조트 점핑파크의 온도는 24
도를 나타냈다. 다음날 국민안전처에서 폭염
경보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한낮 체육
대회 시에도 수련회장은 27도를 나타냈다.

2016년 10월 9일 교회창립 기념주일, 기상
청은 낮 최고기온을 17도로 예보했지만 교회
앞마당 기온은 야외 행사에 적합한 23.7도가
지 올랐다. 야외에서 성찬 점등식이 있던 12월
16일에는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예보됐으나
영상 1도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



▲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으나 수련회가 진행되는 전북 무주군은 제외되어 쾌적한 날씨 속에 치러졌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다!



창립 35주년을 맞이까지 우리 교회는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성결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뿐 아니라
필요한 조직을 갖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전해지는
성결의 복음

GCN방송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이때, GCN방송은 질병과 영육 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일깨우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교회 개척 때부터 복음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세계에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송 선교에 뜻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

2000년 1월에 개국, 2004년 GCN(Global Christian Network)을 결성해 2005년 9월, 미국 애플아이어스테이트 빌딩 송출실에서 첫 전파를 쏘아 올렸다.

세계 우수 방송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공중파, 위성, 케이블 매체를 통해 현재 170여 개국에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으며, 무수한 영혼이 권능을 체험하며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고 있다.



“GCN방송과 협력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러시아계 시청자들은 이재록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성경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해 주셔서 큰 축복과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임팩트TV 유리 체르네스키 사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흠 없는 성결의 복음과 만민의 뛰어난 기독교 문화 등 GCN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콜롬비아 엔라세 방송 로살바 로드리게스 데 링곤 사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악귀가 물러가고, 암, 폐병, 위장병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될 뿐 아니라, 불임환자가 잉태하는 등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 인도 아블바구 GCN 아브라함 빈센트 사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그들의 삶에 빛이 되며, 기적을 보고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 온두라스 JBN TV 에스테반 한달 사장

참 믿음을 소유하여
영적 장수로
성장케 하는

문서선교

1987년 4월, 이재록 목사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발간을 시작으로 『십자가의 도』, 『천국』, 『지옥』 등 현재 110권의 신앙서적을 출판했으며, 이를 61개 언어로 번역해 현재 457종을 발간했다. 57개 언어로 발간된 493종의 전자책도 아마존킨들, 애플 아이북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에는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풀이받은 생명의 말씀들이 담겨 있어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영적 지침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하는 선교지, ‘만민뉴스’는 한국어를 비롯해 현재 33개 언어로 번역 발간되어 인터넷(www.manminnews.com)으로도 볼 수 있다.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천국』을 읽고 막연했던 천국이 뚜렷이 다가왔습니다. 이후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에 담긴 성경적인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판사를 설립해 전하고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만민출판사 정 드보라 사장



“제 목회에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는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도』에 있는 말씀들을 전할 때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곤 합니다.”

- 필리핀 마케리오스목회자협회 회장 임마누엘 곤잘레스 목사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지옥』을 통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최고, 최고, 최고’라고 외치며 감탄합니다.”

- 인도 셀바라지 성도



“아랍어판 『믿음의 분량』 등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는 하나님 말씀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고, 이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 이집트 아지즈 모르간 목사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예능위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교회 개척 때부터 찬양팀 육성과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그리하여 예능위원회는 매주 정기예배 시 준비찬양과 특송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울 뿐 아니라 매년 부활절, 성탄절, 교회창립 등 교회 행사 시 다채로운 찬양과 율동,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으로 삼위일체 하나

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

특히 국내 교계 행사는 물론 연합대회 등 각종 해외 집회에서도 세계 각국어로 찬양하며 수준 높은 기독교 문화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만민찬양'에 근간을 두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찬양, 무용, 연주 등 모든 것이 프로페셔널 합니다!”



“한국에서 온 공연팀은 저희 나라에 와서 아주 특별한 공연으로 한국 문화와 만민중앙교회의 사역을 알렸습니다. 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 모두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 라트비아 계시교회 안드레이 바돌린 목사



“아름다운 찬양과 무용이 넘치는 오케스트라와 대규모의 성가대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은 매우 놀라웠고,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전혀 보지 못한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 ANS(어시스트뉴스서비스) 대표 댄 우딩 기자



“만민의 모든 공연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신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 미국 영적외교단체 회장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



“만민찬양을 번역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감탄했으며, 가사는 은혜롭고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 이스라엘 드미트리 페트로프스키 목사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의학으로 입증하는 WCDN

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

영적으로 피폐해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수많은 지식인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하던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04년 2월, 성경이 참임을 의학으로 입증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모임인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 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매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사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영성과 의학'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주최하여 하나님 권능에 의해 치료된 다양한 사례들을 의학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본부(이사장 이재록 목사, 회장



채윤석 박사)를 둔 WCDN은 미국, 스페인, 이스라엘,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등 전 세계에 21개 지부를 두고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시코 등 전 세계에 21개 지부를 두고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그분의 권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다양한 간증과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로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을 보며 감동되었습니다. WCDN 사역을 통해 제 신앙은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 불가리아 류브카 탄체바 박사



“5~6시간에 걸쳐서 지방흡입술을 받은 한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소생하였습니다.”
- 미국 알만도 피네다 박사



“WCDN 사역은 우리의 삶과 사역, 비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콘퍼런스를 통해 참석자들은 매우 행복했으며, 우리는 만민의 사역으로 아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 멕시코 다니엘 푸엔테스 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사역을 통해 성결의 오중복음으로 깨어나는 전 세계 목회자들의 요청이 쇄도함으로 2005년 4월, MIS(만민국제신학교)를 설립하여 현지에서 사역할 능력 있는 영적 장수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미국, 파키스탄, 일본,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된 주의 군사를 양성하는

MIS

Manmin International Seminary

태국, 인도, 몰도바, 키프로스공화국, 몽골, 러시아, 벨기에, 민주콩고 등 세계 곳곳에서 만민국제신학교를 통해 목회자들

은 물론 영적 성장과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수강하여 성결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무장하며 능력을 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 MIS(www.manminseminary.org)로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 과정은 초급(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성령, 기도, 영적인 사랑), 중급(예배, 심계명, 팔복, 선, 천국과 지옥), 고급(일곱교회, 교회성장의 비결, 창세기강해, 고린도전서강해, 권능)으로 진행된다.

“MIS 수강을 통해 신앙과 사역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프리카 만민국제신학교(MIS)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들을 전할 때 들어보지 못한 영적 말씀에 감격스러워하며, 수강 요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



“엔라쎌 방송에서 이재록 목사님의 '천국' 설교를 들은 뒤 MIS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말씀을 무장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미국 워싱턴만민교회 카를로스 레온 목사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를 읽고 은혜를 받아 MIS 과정을 수강한 덕분에 성경 말씀의 영적 의미와 비밀한 섭리를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파키스탄 스테피 메린 자매



교회 창립 3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러시아

Поздравляем с 35-ой годовщиной церкви Манмин!



인도

35^{வது} ஆண்டு விழா கானும் மாந்மீன் தலைமை சபைக்கு எங்கள் அன்பின் வாழ்த்துக்கள்.



미국

Congratulations on the 35th Anniversary of Manmin Central Church



중국

祝贺教会创立三十五周年



케냐

PONGEZI!!
Kuadhimisha Mwaka wa 35



필리핀

Maligayang bati sa ika-tatlung limang taong anibersaryo



일본

創立35周年
を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해외 지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상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410-4194
- 사랑만민교회 경북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참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삼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덕산로 22, 은생빌딩 5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